

“직장에서 부처님 뜻 실천”
5 직장직능 신행단체 임원 수련대회

다시 찾은 ‘백제의 미소’
12 마애삼존불 보존 처리공사 완료

선암사 해우소서 깨닫다
13 정승호 시인과 함께하는 사찰기행

“마음 쓰임은 자신에게 달려”
17 선지식-대덕사 달마선원 자원 스님

“정교분리 법제화 시급”

정부 잇단 종교편향 행위에 불교계 우려 목소리 높아

대한민국은 헌법 제20조 제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해 국교의 부정과 정교분리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정교관계는 분리와 상호존중의 원칙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종교계가 평화적 촛불집회문화화를 위해 나서면서 종교의 정치참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고, 이명박 정부의 잇따른 종교편향행위로 종교권력의 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런 가운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이 7월 8일 만해 NGO 센터에서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현주소’라는 심포지엄을 열고, 계간 <불교평론>은 최근호에서 ‘종교와 정치권력’이란 주제의 특집을 실었다. 불교단체시국법회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수경)가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주권재민·정교분리의 헌법정신 구현’을 목표로 상설조직으로 개편되는 등 불교단체들의 종교편향 불식을 위한 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정교분리와 종교편향문제 등에 대한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의 목소리를 정리했다.

▲**종교권력의 대두**=유승무(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교평론>에 발표한 ‘종교권력 현상의 문제점’이란 논문에서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한국 사회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종교권력 현상이 발생했고 또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

했다. 유 교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신교 연합은 ‘고소영’이라는 신조어에 등장하는 소망교회 인사들이 인수위 단계부터 다수 참여하는 등 ‘정치권력-매개-종교권력’ 현상을 보였다”며 “국가나 정치가들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도록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구(호남신학대) 교수는 ‘교회권력과 정치권력, 그 만남과 갈등의 역사’라는 논문에서 “종교와 국가는 자신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원 청구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런 헌법소원청구는 특정종교 투표수 문제가 차후 선거에 반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위성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학내 종교자유**=김기현 변호사는 종자연 심포지엄에서 ‘사립학교 종교교육과 종교자유침해에 대하여’란 발제를 통해 “현행 헌법 및 교육관계법령이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종교교육은 반드시 복수선택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며 “대광고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주장에 대해서는 95%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했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하게 특정종교를 찬양 또는 비난하는 행위’가 정교분리 위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80.1%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대답해 공직업무와 사적업무에도 공직 신분이 적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효원 연구원은 논평에서 “최근 시국미사, 예배, 발회 등 종교의 사회참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공직자의 중립과 정교분리를 위해서는 급변하고 있는 종교계와 사회의 변화에 맞춰 종교관련법이 제·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편향 감시활동**=시국법회추진위원회는 7월 8일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부재와 독선, 종교적 갈등고조 등 국민통합을 해치는 행동과 정책을 끊이지 않고 있고, 이는 임기 중 계속될 개연성이 매우 커 지속적으로 종교편향행위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 종교편향 종식 불교연석회’는 9일 “국가공무원법에 종교운동 금지 조항 추가, 초중등교육법에 종교강요 행위 등 금지 조항 추가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법개정 후 공직자 종교편향 매뉴얼 제정과 대통령령 및 국무총리령 공포와 공직자 종교편향에 대한 교육자료 발간 및 교육실시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우·노덕현 기자

종자연 ‘정교분리 현주소’ 심포지엄 개최 시국법회추진위 종교편향 불식 활동 나서

건전한 감시의 시선과 비판적 충고를 하는 긴장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교회투표소 선정문제**=종자연 심포지엄에서 허진민 변호사는 ‘종교시설투표소로 바라 본 공공영역 종교자유’란 발제에서 17대 대선 교회투표소 선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편리성만을 강조한 선관위의 전국 1,160개에 달하는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로 인해 정교분리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종교적 요인으로 투표율이 감소해 대의민주주의 또한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선관위 교회투표소 선정에 대한 헌법소

그는 “아무리 좋은 내용의 교육이라도 그것이 강요될 때는 교육으로서 의미가 없다”며 “정부에서 학생인권 침해요소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행해 종립학교의 종교 강요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 종교편향**=종자연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의 ‘종교와 종교자유에 관한 법학자(1500명)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조인들은 공직자의 정교분리 위반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가 근무시간 중 사적으로 특정종교행위를 주관하는 행위’가 정교분리 위배라는



더위도 있고 세월도 있고

연일 폭염이다. 바닷물로 산문을 열고 닫는 충남 서산시 간월암에 낙조가 찾아온다. 더위도 세월도 있었던 것일까. 7월 9일 더위를 피해 간월암을 찾은 관광객이 밀려오는 바닷물에 두 발을 적시며 아쉬운 듯 간월암을 나오고 있다. 글/사진=박재원 기자

국토부 또 사찰 누락

‘알고가’ 시스템 이어 경관보존대상서도 제외

종교편향 논란을 일으킨 국토해양부의 ‘알고가(www.algoga.go.kr)’ 교통정보 안내시스템이 여전히 부실한 데다, 전국 경관 보존대상에서 전통사찰들이 모두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불교계가 다시 반발하고 있다.

정종환 장관의 공개사과로까지 이어진 ‘알고가’ 사이트의 사활정보 누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에 따르면 알고가 사이트에서는 아직도 태고종 총무원이나, 진각종 통리원은 물론 사찰이나 심인당, 불교방송 등 주요기관들은 아예 찾을 수 없거나 잘못 등재돼 있다. 게다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알고가’에 버금가는 종교편향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국토의 경관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소관 경관법과 관련된

침 대상에서 전통사찰이 모두 빠진 것. 7월 10일,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주경)에 따르면, 국토부의 경관자원 관련 대상 등에는 서원관성곽, 근대 건축물까지 올라있지만, 역사문화 경관자원에 해당되는 전국 930개 전통사찰은 제외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0일, “지난해 12월 제정된 경관계획 수립지침이 의도적으로 전통사찰을 역사문화 경관자원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며 성과와 서원, 근대건축물 등으로 나열한 것은 예시적인 규정일 뿐”이라며 “불교계가 전통사찰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건의할 경우 올 하반기로 예정된 경관지침 개정시 ‘역사문화경관자원’에 전통사찰을 직접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우·조동섭 기자

새 영재 안내

월운 스님의 경전 이야기

-15면(금주부터 격주)

우리시대의 대강백 월운 스님(불신사 조실 동국역경원장이 경전 이야기를 풀어 놓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경전을 자주 접하지만 의외로 경전에 대한 지식은 풍부하지 못합니다. 경전의 기원과 구성 요소는 물론 각각의 경전이 갖는 특징과 핵심을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월운 스님의 경전 이야기 예귀기울어보시기 바랍니다.

할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4면(금주부터 매주)

한국불교 금강선원 총재 할안 스님은 평생을 경전 연구와 수행 활동 및 포교에 매진해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교에 귀의해 수많은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구하고 경학 연구와 수행 실천을 해 왔습니다. 사회와 교단에 이름이 난 스님은 물론 조종히 수행의 본분을 지켰던 선지식들의 숨겨진 이야기, 그 생생한 활어(活語)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 척척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 생산되는 세계 희귀 금강석과 울이온, 안일칼리, 게르마늄 등을 이온 결합하여 특수 소성된 진화공적인 최첨단 기능성 염주
간 245,000 | 02)723-0909

불가 최초 관불 관용 전용 **관불수향**
전단향이 그득한 향양수로 관불,관용시 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향 · 조각 · 공양물 02)3663-6777

사 과 문

불자 및 국민 여러분께,

수도권 대중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알고가(ALGOGA) 시스템’의 전자지도 업데이트 과정에서 사찰 명칭이 누락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자 및 관계자, 알고가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은 시스템 운영기관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업데이트된 지도를 이용하여 지난 6.9일부터 시범서비스 및 보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찰 명칭이 지도상에 표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불자 여러분께 지치 않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불편부당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정부가 계획적으로 특정 국민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자 및 알고가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08. 7.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김 종 원